

문화 전달하는 핵심 코드

한국불교문학 번역 얼마나?

“원더풀! 원더풀!”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선어록 <직지>를 접한 현지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국동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에 놀랐고, 직지가 담고 있는 불교사상에 감동 받았다. 당시 세계인들이 보여준 열광적 반응은 <직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은 한국 불교문학의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2005년, 한국불교문학의 해외진출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또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준비해야 할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2001년까지 해외진출 총 640종 중 불교 작품 60여 종

90년대 이후 동양 사상·선불교 열풍 일며 해외서 관심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해외 저작물은 1만88종으로 전체 신간의 28.5%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해외 저작물들이 국내에 번역되는데 반해 한국문학이 외국에 소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사업을 지원 하는 대산문화재단에 따르면 2001년까지 외국어로 번역돼 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은 총 640종이다. 순수문학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번역돼 해당언어권에서 출판된 것만을 집계한 수치이다.

이중 불교문학 작품은 60여 종 정도밖에 안된다. 만해 한용운·미당 서정주·고은 시인 등 시집이 주류이다. 1970년대까지의 한국문학 번역은 고전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사명감이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만중의 <구운몽>, 제망매가 등 향가가 담긴 <한국시가집>, ‘님의 침묵’ 등을 수록한 <한국시선> 등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선보였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미국에서만 세 차례씩이나 출간돼 주목을 끌었다.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번역 문학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주로 현지에서 출판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책임 있는 관리가 부실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여기에도 보급에도 대부분 실패해 현지인들이 번역 작품을 받아보지 못한 하늘에 별따기였다.

이에 비해 90년대는 김성동 장편소설 <만다라>가 프랑스에서 출판되는 등 프랑스와 독일에서 불교문학이 크게 주목받은 시기였다. 특히 고은 시인의 <조국의 밤>은 독일 최고 출판사인 주어캄프에서 1994년 출판된 이래 올해 <주어캄프 세계시인총서: 세상의 바람>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재발간되는 영광을 누렸다. <주어캄프 세계시인총서: 세상의 바람>은 20세기 저명 작가들의 작품 1300여점을 수록한 <주어캄프총서>중 주요

시인들의 시집을 별도로 소개하는 시리즈이다. 올해 8월 첫 권을 보인 이 10인의 작품집에는 고은 시인을 비롯해 사무엘 베케트, 87년 노벨상 수상자 요제프 브로드스키, 파울 켈란, 독일 최고 시인으로 평가되는 두어스 그랜비인, 9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비슬라바 슬보르스카 등이 포함돼 있어 고은 시인의 독일 내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해준다.

문학 전문가들은 고은 시인의 선시(禪詩)가 유



2005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문학번역서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럽에 불교 관련 선불교 열풍과 맞물려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한다. 고은 시인의 작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 불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은의 작품은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등지에서 현지언어로 번역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미당 서정주 시인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멕시코, 신경림 시인은 미국 독일 일본, 오세영 시인은 독일 멕시코 등지에서 시집이 번역 출간됐다. 또 1999년 프랑스에서 <유형의 땅>으로 첫발을 내디딘 소설가 조정래씨는 독일에서

호응을 얻어 올해 신간 <불놀이>를 출간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문학은 한 민족의 삶과 사상, 역사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문학은 가장 효과적으로 한 집단의 문화를 다른 집단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민족의 삶에 녹아 있는 독특한 불교문화를 담고 있는 불교문학도 외국인들에게 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포교 매개체 구실을 한다.

그렇다면 불교 사상과 소재를 다룬 시와 소설 등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문번역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불교문학의 번역 현실은 종교에 상관없이 몇몇 번역가가 여러 종교의 작품을 두루 번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교적인 사상이나 교리·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무뎡글하게 번역하거나 오역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상가상으로 국가나 종단 차원의 전문번역가 양성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2003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외국인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참가자 수가 16명 정도 밖에 안돼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번역가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은 공신력 없는 민간 기관의 자격증 교

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종단이나 불교출판문화협회 차원에서 인재양성과 함께 고려할 것이 우수 불교문학작품의 선정이다. 작품의 문화사적 가치와 한국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표작을 선별해야 한다. 현지 수용가능성도 적극 타진해야 한다고 번역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종단 차원에서 우수 불교문학작품들을 선별·번역해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교출판문화상이나 저자상을 만들어 작가와 번역자들을 격려하는 등 종단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불교문학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과호환 팀장은 번역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번역·출판 지원 정책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 집중번역 및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소개 ▲영어권 번역의 활성화 ▲신진 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보급을 위한 기초적인 조성 ▲한국문학 번역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전문 행정인력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미당 서정주 시인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멕시코, 신경림 시인은 미국 독일 일본, 오세영 시인은 독일 멕시코 등지에서 시집이 번역 출간됐다. 또 1999년 프랑스에서 <유형의 땅>으로 첫발을 내디딘 소설가 조정래씨는 독일에서

교리·용어 이해 못하는 오역 많아...전문번역가 양성 절실

종단 차원에서 우수 작품 선별 통한 문화 알리기에 앞장 서야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은 11월 11~20일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부산 BEXCO에서 ‘한국문학을 세계와 함께’라는 주제의 도서전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

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종단이나 불교출판문화협회 차원에서 인재양성과 함께 고려할 것이 우수 불교문학작품의 선정이다. 작품의 문화사적 가치와 한국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표작을 선별해야 한다. 현지 수용가능성도 적극 타진해야 한다고 번역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종단 차원에서 우수 불교문학작품들을 선별·번역해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교출판문화상이나 저자상을 만들어 작가와 번역자들을 격려하는 등 종단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불교문학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과호환 팀장은 번역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번역·출판 지원 정책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 집중번역 및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소개 ▲영어권 번역의 활성화 ▲신진 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보급을 위한 기초적인 조성 ▲한국문학 번역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전문 행정인력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미당 서정주 시인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멕시코, 신경림 시인은 미국 독일 일본, 오세영 시인은 독일 멕시코 등지에서 시집이 번역 출간됐다. 또 1999년 프랑스에서 <유형의 땅>으로 첫발을 내디딘 소설가 조정래씨는 독일에서

교리·용어 이해 못하는 오역 많아...전문번역가 양성 절실

종단 차원에서 우수 작품 선별 통한 문화 알리기에 앞장 서야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유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진지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늘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님과 불자님께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늘음에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이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미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이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신전, 명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연꽃조 방등, 탐들이, 방등 등 특이 아원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원 불교용품, 불상조성, 전기촛불, 양초제작 전문 불교 상품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화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노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세계적 단화 : 지압식 깔창, 방한용 털신, 발 깔창

가격 : 80,000원 (규격: 215-290mm,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가격 : 60,000원 (규격: 215-290mm,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발열생 무통방지, 좋은 점 : 만행 포행시 단정할 유지, 색상에 따라 서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합금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발의 예열에 잘을 많이 하시는 서부대중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쪽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원두막 6000 x 3000 x 3200 [mm], 8000 x 3000 x 3200 [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난방난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x 620 x 350 [mm]가:150,000 환:120,000, 1800 x 1030 x 350 [mm]가:180,000 환:150,000

특수 제작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어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며 얼어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www.bangaro.com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권영호

전화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권영호

전화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권영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에게 직접 만든... 山寺 조청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 않는 山寺 참꽃 조청 1.2kg

이월,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향유,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현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간장을 배양하여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x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려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